

세계적 AI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들 광주 집결

광주시, 기업 7곳과 업무협약
(주)에임퓨처 광주지사 개소식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속도
강 시장 “AI산업 확실히 열 것”

세계적인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기업들이 잇따라 광주로 모이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인공지능(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광역시시는 12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와 협력 중인 팹리스 기업은 총 17곳으로 늘어났으며, AI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썬보스반도체 △썬웨이브글로벌 △썬나노링크테크놀로지 △베리실리콘(VeriSilicon Inc.) 한국지사 △텐스토렌트(Tenstorrent) 코리아 △썬비트리 △썬잇다반도체 등 7개사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MX 스튜디오에서 열린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내외 팹리스 기업 7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이들 기업은 칩 설계뿐만 아니라 IP(Intellectual Property,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과 디자인하우스(반도체 제조전 최적화 설계)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의 핵심 축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전략의 실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역 기업과의 공동연구,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다.

참여기업 대표들은 “광주시 AI·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적 지원과 협력으로 지역기업과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광주가 AI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GCC에서는 광주 팹리스 유치 2호 기업인 (주)에임퓨처의 광주지사 개소식도 진행됐다. 광주지사는 공유 오피스 형태로 운영되며, 팹리스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개방형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뤄진 실질적 성과로, 지난 4월 에이직랜드 광주사무소 개소에 이어 팹리스 기업의 지역 정착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시는앞으로도 팹리스기업 유치를 지속확대하고, 기업 간 협업 생태계와 테스트베드(시험무대)를 강화해 AI반도체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에이직랜드와 에임퓨처를 시작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주체들이 광주에 집결한 의미 있는 성과다”며 “광주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AI산업을 광주에서 확실히 열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보해양조, 복분자맛 디저트 술 ‘복받은부라더 흥연’ 출시

복분자·배·사과 과즙 블렌딩 MZ세대 여성 입맛 공략 나서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는 기존 복분자맛 과일소주 ‘복받은 부라더’를 리뉴얼한 신제품 ‘복받은부라더 흥연(375mL·알코올 도수 11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과일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보해 복분자주의 고품질 과즙을 베이스로 배, 사과 농축과즙을 더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구현했다. 여름철 가볍게 한 잔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기존 과일소주와는 다른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보해양조는 20~30대 젊은 소비자층의 음주 트렌드 변화에 주목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흐름에 따라 한 병을 마시더라도 제대로 된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단일 과일소주보다 다채로운 풍미를 제공해 안주 없이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술로 제품을 리뉴얼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코다차야’, 부산 ‘삼진포차’ 등 전국의 핫플레이스

이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전 런칭을 진행했다. 이후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며 주목 받기 시작했고 현재 주요 편의점(GS25, CU, 이마트24)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입점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최근 음주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취향과 상황에 맞는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복받은부라더 흥연은 안주 없이 그 자체로 디저트 역할을 하는 술로, 여름철 가볍고 특별한 한 잔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동남아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시장 공략

1Way 카세트형 신모델 출시

삼성전자가 스마트한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와이파이(Wi-Fi) 기능과 콤팩트한 디자인을 갖춘 1Way 카세트(Cassette)형 시스템에어컨 신모델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1Way 카세트형 무풍에어컨은 높이

135mm의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공간 효율성도 높아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동남아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내장형 와이파이가 탑재돼, 별도의 와이파이 키트(kit)를 구매하지 않고도 ‘스마트싱스’와 ‘빅스비’ 등 스마트한 사용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프리미엄 주거 단지부터 공공 시설, 고급 리조트, 호텔 등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B2B 냉난방

공조 솔루션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동남아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1Way 카세트 모델의 판매량은 35% 이상 급증했다. 콤팩트한 디자인과 독보적인 냉방 기술까지 갖춘 제품을 통해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향석 상무는 “스마트한 연결 경험과 콤팩트한 디자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스템에어컨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며 “동남아에 이어 글로벌 전 지역 공조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고물가에 내식 수요 증가… 구이용 한우 ‘인기’

광주 이마트, 우육 매출 14.3% 신장 외식물가 급등·한우 대중화 등 원인

고물가 여파로 ‘내식(집에서 먹는 식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이용 한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2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우육은 14.3%, 돈육 8.4%, 계육 6.1% 신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육 중 브랜드 한우안심 125.2%, 한우채끝 93.0%, 한우등심 65.0% 순으로 구이용 부위의 신장이 두드러졌다.

한국인 밥상에 필수 요소였던 ‘국’을 먹는 습관이 줄어들고, 집에서 채소 등을 곁들여 고기를 먹는 문화는 확산되면서 구이용 등심, 안심, 채끝 등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광주지역 이마트 한우판매에서 ‘구이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

고 있다.

브랜드 한우 중 구이용 매출비중은 2022년 44.6%에서 2024년에는 52.3%까지 증가했다.

이는 한우의 대중화와 더불어 외식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집에서 간단하며 즐겨 먹을 수 있는 구이류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는 2021년 5월 100g당 도매 평균 가격이 1만2848원이었지만 점차 오름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5월에는 1만387원으로 하락했다. 올해 5월 들어서는 1만865원대로 전년 동월 평균 대비 4.6% 높은 시세를 형성했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증시는 곧바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쏟아낸 일련의 경제개혁 정책들과 함께 상법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는 오랫동안 한국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공시 미흡,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미국 등 글로벌 주식시장에

이재명 정부 시대, 코스피 5000 가능할까

대비해 한국의 주식시장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장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을 통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의결권 도입, 대주주의 책임 강화, 기업수익의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활용 제한, 과 스튜어디스 코드 강화 등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증시도 예측이 가능한 시

장이라는 이미지를 쌓아 신뢰를 받으면 코스피 지수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반갑고 희망적인 소식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 당시 맥을 못 추던 한국증시는 이재명의 당선 이후 고공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투자자금도 눈에 띄게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투자자 친화 시장으로의 전환 의지에 보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화답이다.

현재 코스피 PBR(순자산가치 대비 시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단순 계산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해서 코스피 PBR을 1.6으로 2배만 올려도 코스피 지수는 6000에 도달하게 된다. 신흥국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있는 한국증시가 신흥국 수준으로만 평가되도

장 실제 평가율)은 0.84 정도로 선진국 평균 PBR 3.5에는 물론 신흥국 평균 PBR 1.8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나스닥 PBR 7에는 아예 비교조차 안된다.

6000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친 코스피 5000시대는 꿈이 아니다. 물론 국내 정책만으로 한국증시의 미래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경제 상황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한국증시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고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에 투자자의 한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낸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개미 투자자로 활동했고 그래서 어떤 후보보다도 증시와 경제에 밝다고 스스로 여러번 밝혀 왔다. 이제 그는 기득권에 맞서는 이재명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력을 지켜볼 때다.